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로 다시 헌신하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강사소개

*오늘: 조쉬 맥도웰 목사 (조쉬 맥도웰 미니스트리 대표)

'신앙여정의 도전' (롬 12:2)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라' (막 14:3-9)

*내일: 칩 잉그램 목사 (리빙온디엣지 대표)

'위대한 기도의 5가지 특징' (눅 11:2-4)

장경동 목사 (중문교회)

'새 인생' (눅 15:32)

3. '거룩한 재헌신' 특새기도카드 활용안내

특새 기간 중 응답받기 원하시는 기도제목을 적어서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한 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역자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본당, 은혜채플, 사랑아트채플을 제외한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남, 북측 1층 출입문에 위치한 기도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4. 특새 가이드북

특새 기간 중 부여하시는 은혜의 말씀과 기도응답을 기록하는 영적 다이어리와 은혜 가득한 특새 찬양악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 금요일 2시 30분- 7시 30분까지(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오전 10시까지 (입차 시 주차권 배부).

• GS파크 24: 월요일- 금요일 2시 30분~ 7시30분까지(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오전 9시 30분까지.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6. 은혜 게시판 활용

값진 보화보다 귀한 은혜를 특새 <은혜 게시판>에 보관함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200분(50-250)께 20살의 젊은 영성으로 꿈꾸게 하는 "청춘음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한국교회/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revival.sarang.org/index.asp> 를 클릭하셔서 은혜 게시판 (Reflection 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물같은 주의 은혜, 쏟지 말고 담아 두자!

거룩한 재헌신(Holy Rededication), "그때 그 시절"



내수동교회 대학부원들이 1981년 11월 집회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오정현 담임목사님을 찾아보세요!

은혜게시판

특새는 '영적파티'다 _ 이승수

세상 속에 파티는 장소의 화려함과 사람의 흥, 눈과 입을 유혹하는 음식으로 욕망의 허기를 채우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더 큰 욕망의 열등의식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특새라는 영적파티는 삶의 두려움과 고난이 기쁨이고 감사이며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고 내일의 삶에 소망까지 주는 천국파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새파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고난, 신자의 영광 _ 황혜원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찬양,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설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내가 반응하는 것만큼 나의 수준이고, 실력이다". "신앙의 길은 만만치 않다. 외적인 박해, 어려움, 핍박, 고난,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중단하지 않는다". 마치 한국교회 부흥기의 저녁 사경회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다려지는 특새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흥의 열매 맺게 하소서 _ 조소연

교회에 다시 나오게되며 매주 말씀이 내 마음에 단비로 맞춤으로 은혜를 주시어 재헌신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신 감사와 감격~~~~ 이제 부흥의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낮춰 겸손함으로 내 주저पा막을 잘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 악한 길을 떠나 방향을 바로 잡아 주님께 용서와 치유의 은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어 부흥을 맛보는 최고의 시간들로 날마다 만들어 가리라 소망합니다.

100%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는 세대별 특새 참여 방법



베이비붐 세대 (1955-1963)

1.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다. 3시에 기상! 몸이 알람이다.
2. 저녁은 두부 한 모만 먹는다.
3. 받은 은혜를 은혜 게시판, 카톡, 네이버밴드에 올린다.

X & Y세대(1965~1996)

1. 알람을 5개 이상 맞춰 놓는다.
2. 저녁은 샐러드로 먹는다.
3. 받은 은혜를 은혜 게시판과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작성한다.



Z세대

(1996~2010)

1. 특새 참석을 위해 안 잔다.
2. 저녁은 특새 참석을 위해 안 먹는다.
3. 받은 은혜를 은혜 게시판과 인스타그램 사진에 기록하고, 메타버스로 특새 현장을 만든다.



말씀을 먹는 아기



첫째날

신앙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박해,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거룩한 재헌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뉴스레터 News Letter 255호 주후 2022년 4월 18일(월)

Holy Rededication.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전도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이란 성도들의 믿음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흥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흥의 대상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14절a)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되고 제한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부흥의 대상입니다. 일주일 내내 특새를 사모하는 이들이 부흥의 대상입니다.

둘째, 부흥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말라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에서 주의 은혜가 머뭍니다.

셋째, 부흥의 열매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상처, 절망, 겸손, 회개를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돌이키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특새의 은혜를 확신하고 부흥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부흥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는 홀로서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연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뽄뽄 뽄뽄, 함께 전투를 하면 원수 마귀가 쉽게 끼어들지 못합니다. 개인과 교회의 부흥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봅시다.

지난 2년여 간의 모든 우울과 역울, 심령의 빈 곳을 다 찢어내고 모두 털어내는 특별한 특새 되십시오.

주후 2022년 4월 17일 주일설교 '부활의 부흥' 중에서

TODAY'S PRAYER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로 다시 헌신하게 하옵소서

- 1/ 제20차 봄 글로벌 특새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에 은혜의 물꼬가 터지고 응답의 기쁨이 쏟아져 나와 은혜의 새날이 열려 평생토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 2/ 안아주심의 현장과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가족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성광으로 보호하여 주사 거룩한 재헌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소서.
- 3/ 세워주신 강사님(조쉬 맥도웰 목사, 김병삼 목사)과 담임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감절로 부어주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재헌신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소서.

글로벌 특새 환영 Re



특새는 기도의 파도와 은혜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천국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눅 13:29)

지난 2003년 40일 특별새벽기도회로 시작된 사랑의교회 특새는 이제 스무살의 패기와 젊음의 기백으로 무장된 한국교회의 영적 비밀병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20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기간에 삶의 모든 영역마다 ‘거룩한 재현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를 소망할 때 안아주심의 본당은 ‘생명의 떡’, ‘희락의 강수’가 가득한 잔치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영혼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른 새벽 찬 공기를 가르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오는 사랑하는 영가족의 걸음 소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용사 발걸음’이요, 온 성도들의 기도소리는 마귀를 향해 선제 공격하는 ‘기도대첩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치밀어 오르는 벽찬 감격으로 기쁨 가득한 찬양의 포효(咆哮)로 함께 부를 그 날을 기대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17일 주 안에서 따듯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 목사

1차 특새 참여자 기대 Re



박경서 집사(목양3팀 순장)

코로나를 지나며 어느덧 20차 특새를 맞이합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 없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대로 특새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새를 기점으로 틀림없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없었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회복하여,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값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재현신으로 반응하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윤옥 집사(목양4팀 순장)

2003년 9월 8일 1차 40일 특새를 시작으로 20차 특새까지 단 한 번도 기대없이 특새를 맞이한 적이 없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의 삶을 지으시고 일으키시며, 복음의 신비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4세대인 저희 자녀들이 특새의 은혜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연주 권사(목양3팀 여순장 교구장)

사랑의교회 첫 특새가 있었던 2003년에 저의 모습은 어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차 특새를 맞이하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순장 사역을 섬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차 특새에도 한결같이 따뜻한 충성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진수 집사(목양9팀 순장)

2003년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던 40일 첫 특새는 매해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특새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선봉장 삼아,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20차 특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저수지를 더욱 차고 넘치게 채워 주셔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3



2003.9.8~10.18
제1차 40일 특별새벽부흥회

2005



2005.10.3~10.8
제3차 특별새벽부흥회

2013



2013.10.14-19
제11차 특별새벽부흥회
2013.11.25-29
입당 특별새벽부흥회

2020



2020.11.9-13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

2016



2016.2.22-27
2016 봄 특별새벽부흥회
2016.10.3-8
제14차 특별새벽부흥회



2017.2.20-25
제15차 봄 특별새벽부흥회
2017.11.6-22
제15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2015.10.5-10
제13차 특별새벽부흥회



2018.3.12-17
제16차 봄 특별새벽부흥회
2018.10.22-27
제16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2019.3.11-16
제17차 봄 특별새벽부흥회
2019.9.23-28
현당감사 제17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1차부터 20차까지의 특새 역사



참여교회 특새 기대 Re



이강민 목사(대전새중앙교회)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기대이며, 설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번 글로벌 특새를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모든 한국교회의 영적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주환 목사(익산예안교회)

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안위가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 하길 원합니다.



대전새중앙교회



예안교회



인동성결교회



대구동신교회

김양운 목사(인동성결교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국교회가 이번 제20차 봄 글로벌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고, 지금까지 놓치고 지나왔던 정말 중요한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강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새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에 정착시킨 ‘특새’가 이제는 ‘글로벌 특새’로 자리를 잡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이번 글로벌 특새로 인해 회복되기를 바라며, 단순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